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개최(11.9) -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9일(목)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23.10.19) 후, 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및 필수医료를 살리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발제하였으며, 이철 前세브란스병원장인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이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인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상생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필수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 및 인력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안심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은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2023년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포스터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황지영 (044-202-2540)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체추진센터

2023년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2023.11.9.(목) 11:00 ~ 17:30
한국의집 취선관 2층
 [서울 중구 퇴계로 36길 10.]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협찬/지원 | 전국 공공의료기관 거점중

코디네이터 |

장소/주최 | 국립중앙의료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nmc.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

문의처 | 기획조정담당자 김현희 02-6362-3771

시간	강의내용	강연자
11:00~11:20 (20)	교육 안내 및 참석자 소개	국립중앙의료원
11:20~11:30 (10)	환영사	추경수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11:30~12:30 (60)	지역가능한 사회연결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	정기석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
13:30~14:00 (30)	모현 (장소: 한국의집 본관실)	
14:00~15:00 (60)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은 무엇에 있다	최철 명예회장 (제1호 의료재단)
15:00~16:00 (60)	상생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논의 - 지역연결망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	김영태 원장 (서울대병원), 국립대학병원협의회 조승환 회장 (연세대학교), 한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16:00~17:00 (60)	지역연결 필수의료 혁신전략	박민수 대표이사 (국립중앙의료원)
17:00~17:30 (30)	종말 평가	국립중앙의료원

* 간담회별 교육도료 분량별 등록부스 분량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지원)

* 내포, 수간 등 내포의 경우 해당한 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